

왜 일 하세요?

–인공지능의 시대, 어떤 기준으로 일을 선택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숙영 이숙영 자기계발 클리닉 대표

백수 100만 시대, 2017년 9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2%.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실업률은 21.5%로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 셈이다. 최근 많은 청년이 취업준비를 위해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 2017년 9월 20일자 서울신문에서, 직장인 임유진(가명·25)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 한 친구들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들 힘든 상황인 걸 아니까 서운하더라도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2년째 취업 준비 중인 이지연(25)씨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걸 느낀다"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서너 달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모인 독서실에서는 '소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25일자 트위터에는 '멀티펜 사용을 독서실 내에서 금지합니다'라고 쓰인 독서실 경고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경고문에는 "색깔 변경 시 내는 스프링 튕기는 소리가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쓰여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볼펜 스프링이 튀는 소리조차 방해가 되는 예민성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들은 왜 이토록 열심히 공부할까? 우리는 왜 일을 하려는 걸까? 그리고 일(직업)을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계, 돈, 행복, 자아실현, 열정, 아니면 당장의 만족이 일을 선택하는 기준일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가.

직업은 한 개인의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의 내용과 수준,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세계화·정보화 시대인 21세기는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생성과 소멸이 급변하고 있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셀프진로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이 나의 강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해보고 강점과 진로를 연결해서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이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휴식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일하고 싶은 욕구도 있다. 그리고 일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에 따라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한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싶은 자존의 욕구는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의 일자리 구조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형 일자리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을 언급하고 있다. "한동안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기업과 일자리의 수명은 짧아진다. 작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고차원의 사고능력이 필요한 일의 가치가 커진다. 비효율적인 분야의 효율화에 주목해야 하고 전문직의 직무 하향화가 시작된다. 스펙의 효용성, 라이선스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 조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호(더랩에이치 대표)는 그 기업이 당장 얼마나 잘 나가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미래 직업을 만들어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곳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그 직장이 미래 나의 직업을 만드는데 어떤 기회와 경험들을 제공하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나를 되돌아보니, 일을 선택했던 나만의 기준은 내 열정을 쏟는 자아실현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나에게 있어서 일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일을 통해 가르치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좀 더 잘 가르치게 될 때 행복감을 느낀다. 나의 대표강점인 학구열을 발휘하기에 얻는 진정한 행복감이다. 자신의 대표강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강점을 연마하여 필요한 곳에서 발휘할 수 있다면, 약점 때문에 비롯되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싫던 공부가 지금은 즐거운 일상이 되었고, 일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체험하고 있다. 일을 통해 삶의 활력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 생기다 보니 타인에 대한 존중과 너그러움도 저절로 커짐을 알 수 있다. 혹자는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내가 그때 일을 더 했어야 했는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죽음 앞에서 "일을 더 할 걸 그랬어!" 라고 말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원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미래의 일자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기계가 인간을 빠르게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기계와 함께 일하면서도 기계와는 차별화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인간이기에 가능한 능력이 무엇인지, 또 오로지 나이기에 가능한 능력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연산은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컴퓨터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다. 반면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일은 어린 아이에게도 아주 쉬운 일이지만 컴퓨터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해보고 그 중에서도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성찰해보는 내면 탐색의 시간은 미래 자기만의 직업을 만드는데도 유용하지만, 일에서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더 크게 느끼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 직장을 벗어나도 생존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나를 살아있게 해주는 평생의 업(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은 더 이상 개인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회사에 평생 뼈를 묻겠다고 하는 직원을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